

전세계 한상에 전주 기업·산업 알린다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주시 35개 기업 참가... 전국 시·군 중 가장 높은 참가율 기록

전주시가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세계 곳곳을 누비는 한상들에게 전주지역 우수기업과 주력산업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주지역 35개 기업이 참가해 3000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에게 탄소·수소·드론 등 전주시의 뛰어난 주력산업을 알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주지역 35개 기업이 참가해 3000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에게 탄소·수소·드론 등 전주시의 뛰어난 주력산업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케아푸드 등 10여 개 분야의 업체가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참가해 전주시의 다양한 우수한 품목을 바이어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시는 대회 기간 중 이뤄지는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수출상담회와 해외통상데이터 운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경제통상진흥원·무역협회·KOTRA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연계프로그램으로 전북대학교 소운동장에서 ‘제6회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 드론레포트포럼(전야행사) △개막식 △2025 FIDA 드론축구월드컵 홍보관 및 시민 체험관 운영 △드론 기업전시관 운영 △전주시장배 드론축구대회 개최 및 국내·외 친선경기 진행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시민과 세계 한

상들에게 전주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현주소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람회 첫날인 22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전주의 드론 레저스포츠 비전을 담은 영상과 드론 공모전 수상 영상 시속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또한 △우리아이오 △드론테크 △디클래스 △클릭종합기술원 등 전주지역 드론기업과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드론 기업전시관’이 3일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부스(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된다.

여기에 시는 내년 9월 드론축구 중주도시 전주에서 최초로 열리는 ‘2025 FIDA 드론축구월드컵’을 홍보하고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알리기 위해 홍보관을 운영한다. 또, 전주시장배 드론축구대회(성인부, 대학부, 유소년부)와 미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8개국 해외선수팀과 국내 소방공무원팀, 60세 이상 실버팀, 장애인팀, 최연소팀, 여성팀 등 국내·외 드론축구 친선경기도 펼쳐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 막걸리 매력에 ‘풍덩’

‘전주막걸리축제’ 25-26일 전주종합경기장서 개최

미식도시 전주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전통주인 막걸리와 전주의 다양한 먹거리, 전통문화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5~26일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10월 한 달간 펼쳐진 ‘전주페스타 2024’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2024 전주막걸리축제’를 개최한다.

전통주를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리는 전주막걸리축제는 막걸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주의 전통과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전주의 맛과 멋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삼천동 막걸리골목 등 전주지역 유명막걸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막걸리 안주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MZ세대를 겨냥한 과일막걸리가 판매되고, 막걸리 카테일 쇼 등 특별이벤트와 다양한 막걸리 놀이, 막걸리 선수권 대회 등 방문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콘텐츠들이 축제를 가득 채워 준다.

이와 함께 이번 전주막걸리축제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



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주온가족 시민장터’와 연계해 개최된다. 온가족 시민장터에서는 다양한 수공예 체험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와 공연, 가을 그림대회 등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축제 마지막 날에는 ‘전주페스타 2024’의 대미를 장식할 ‘전주페스타 클로징 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클로징 축제에서는 2000대 이상의 드론이 군집을 이룬 지상최대 규모의 드론라이트쇼와 화려한 멀티미디어쇼, 가수 테이와 다이나믹듀오의 축하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현안 해결 한목소리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등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가 지방의정동우회의 법률 근거 마련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한빛원전 인근 고창군 어민 생존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차 월례회를 열어 지방의정동우회의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먼저 지난건의회 동창목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

정동우회를 구성, 지역발전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제안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의회는 “영호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제2중앙경찰학교의 미래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남원에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전보상구역 내 어민의 생계 유지와 터전 확보를 위한 한정면허 개발,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한빛원전은 고창군 어민의 생계유지와 터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한정면허 개발과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을 통해 어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즉각 지급,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이 핵심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의 현실화와 미지급된 보통 교부세의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남원시 의장은 “시·군의회 의정들과 뜻을 모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각각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정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완산소방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기간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기간동안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22~24일에 시행되며 전주완산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행사장, 숙박시설 등 순찰노선 확대 및 순찰 강화 △대형재난 대비 긴급 대응태세 확립 △주요행사장 소방력 급배치 △신속한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강화 등이다.

또한 대회기간 전 사전대비로 9월부터 관내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 현장 방문행정, 현지작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화재 취약요소 제거 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동안 도민과 방문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경계근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자연장지 조성 위한 무연분묘 개장 착수

전주시는 오는 19~31일 효자묘지공원 내 특정 연고자나 관리자가 없는 집단 무연분묘 500여 기에 대한 개장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장 대상은 시가 지난 8월부터 총 2회에 걸쳐 실시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무연분묘다. 해당 무연분묘는 앞서 지난 1987년 화산(삼천)지구의 집단 무연분묘를 옮겨온 것이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을 진행하고, 개장 후 효자공원묘지

내에 집단 매장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효자공원묘지 내 공설 자연장은 오는 11월 만장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부지에 공설 자연장을 추가조성할 예정이다.

김현욱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분묘 개장 기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정비를 통해 공설 자연장이 추가 조성되면 시민 편의 증진 및 장례문화 진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금암1동 마을계획추진단·주민자치위, 가을맞이 꽃 식재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주민센터(동장 정내섭)와 마을계획추진단(단장 김동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용봉) 회원들은 가을을 맞이해 지난 16일 금암1동 곳곳에 가을꽃을 식재했다.

마을계획추진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10여 명은 금암1동 주민센터 입구 화단과 금암어린이공원 등에 국화를 정

성스럽게 옮겨 심었다.

김동우 마을계획추진단장은 “가을꽃심기 행사가 적극 동참해준 회원 여러분들과 주민자치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주민과 금암1동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소소하게나마 식재된 꽃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2024 전주 사회적경제박람회

날짜 | 10.18. 금 ~ 19. 토 시간 | 11:00 ~ 20:00

QR코드로
사전등록 하기!

(등록 시 5,000원 쿠폰 지급)

문의 | 063-288-7107

※ 본 저작물은 디자인 수행사와 상호 협의 후 게시합니다.

전라감영

- ◆ 마켓·체험
- ◆ 제기차기
- ◆ IR발표대회

- ◆ 협동골든벨
- ◆ 소설공연
- ◆ 정책포럼

- ◆ ESG패션워킹
- ◆ 상생오락실

JEONJU SOCIAL ECONOMY FAIR

주최 | 전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전주소통협력센터 | 후원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주중상산업 | JKT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전북관광산업지원센터